

Oligodontia 환자의 보철 치료

최정원, 김광남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oligodontia 환자는 치아수의 부족, 기형치아, 악골발육의 저하, 부정교합 등의 문제를 갖는다. 따라서 성장기의 교정적 처치, 성장후의 외과적 처치와 함께 광범위한 보철수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들의 보철적 치료는 overdenture가 많이 사용되어 왔다. 즉, 잔존 치아에 inner crown을 제작하고, 여기에 telescopic denture을 제작하여, 교합고경의 저하나 악골의 저성장을 보완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치아수가 많은 경우에 부적당하고, 또한 심미성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증례는 보철치료의 한계내에서 가능한 심미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milling technique을 이용한 국소의치를 제작하고, 올바른 기능적 수복을 위해 bite raising한 증례이다.